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12월 18일 (제1180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명작은 열정의 산물

요즘 나는 그림을 그린다. 주로 기도를 마치고 밤 2시까지 그림을 그린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다 보니 2시가 훌쩍 넘었다. 그러자 나와 함께 있던 손자인 지훈이가 “할아버지, 2시가 넘었어요.” 한다. 그 만 그리라는 말이다. 그때 내가 말했다. “이 것을 끝내야 한다. 하던 일을 마치지 않았는데 잠이 오겠니?” 그 그림은 3시가 넘어 완성되었다.

명작은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명작은 열정의 산물이다. 열정이 뭔가? 최선의 다른 이름 아니던가.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 당연히 명작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후대가 나를 평가할 때, 더욱이 주님이 나를 평가할 때 ‘이건 명작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살 것인가?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미쳐야 명작이 나온다. 뭔가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삶은 행복한 거고, 미쳐서 그것을 완수했다면 그 삶은 성공했다 할 수 있다. 식은 밥은 맛이 없다. 인생도 미지근하면 맛이 없다. 뜨거워야 한다. 뜨거우면 암도 죽는단다. 열정이 있으면 못 이룰 것도, 못 이룰 곳도 없다는 것이다.

내가 불붙지 않으면 남을 불붙일 수 없다. 내가 뜨거우면 남도 덥힐 수 있다. 내가 열정을 가지니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본받더라. 그래서 나는 2023년을 다시 뛰는 원년으로 삼으려고 한다. ‘나이야, 가라!’ 하고 나이는 나이아가라에 묻고 왔기에 이에 연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다시 세계로 뛰어 한다.

누군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라고 한다. 아니다.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셨듯, 나 역시 내가 살아 있는 한 열정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보시고 입을 딱 벌리며 ‘와~ 진짜 명작이다!’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주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 심판할 수 있게 하련다.

2022년이 저문다. 불이 꺼지기 전에 다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2023년에는 활활 타는 열정으로 목적인 바를 이뤄보라. 우리는 할 수 있다!

성역 3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초월적 에너지의 원천은 ‘사랑’과 ‘분노’라고 한다. ‘분노’라 함은 사실 복수심의 다른 표현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끔 인간의 복수심은 전혀 예상치 못한 변곡점을 만들곤 했다. 그러나 분노로 촉발된 에너지는 그 불이 소진되었을 때 더 이상의 추진력도 발휘될 수 없을뿐더러 그 후과(後果) 역시 좋은 적이 없다.

그러나 사랑으로 비롯된 에너지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주위에 전염되고 선순환 효과로 인해 더욱 풍성해지곤

노라 말씀하셨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님의 성도에 대한 사랑은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다. 설교를 듣고 깨달은 성도가 결단하고 실천하여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성도 본인보다 더 기뻐해주고 칭찬해주며, 또한 더 높은 목표와 비전을 바라보고 뛰라고 격려하신다. 나의 일을 두고 누군가 나보다 더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은 배가 되고 에너지가 샘솟는 법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연세에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시며 특으로 들어온 상담들을

지 변함없는 길을 걸어가시는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교회에 들어와 일한 지 31년이 되었고 목사님을 수행하며 지근거리에서 목사님을 바라보게 된 지는 20년이 좀 넘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일하며 단 한 번도 권위를 앞세우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권위 보다는 일의 가치를 강조하셨고, 때론 술선수범으로, 또 때로는 인내로 기다려주시곤 했다. 일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가끔 부대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목사님의 일에 대한 태도와



예수 외에 정복자 없게 하소서!

38th Anniversary of Ministry Congratulations!

한다.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전부를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수많은 영혼들에게 울림을 주고 그 사랑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 삶 전체를 드리는 일들이 계속되는 이유도 바로 그 사랑의 힘이라 생각한다.

목사님을 생각할 때 단 위에서 펼치는 사자후(獅子吼)의 모습에서 가끔 오해가 빚어지기도 하지만, 그분의 삶과 목회를 들여다보면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를 처음 만나고 본인의 삶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 삶의 목표나 지향점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가족을 위해 눈물로 애통하셨다는 이야기나 자신의 실수로 인해 교회를 떠난 성도로 인해 급식하며 기도한 결과 다시 돌아온 성도를 보고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 기뻐했었

일일이 답변하시고, 어떻게든 성도의 문제, 병들었거나 고통받고 있거나 좌절하여 무너져있는 영혼들을 살리려 노심초사하신다. 그리고 그 성도가 기쁨을 되찾고 결단하는 모습에 마치 해산의 고통을 잊는 산모처럼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제나의 양식(糧食)이라고 말씀하신다. 한밤중에 걸려 오는 전화, 그것도 특별한 내용도 없이 반복되게 걸려 오는 전화임에도 목사님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받는다 고 하신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명제를 늘 염두에 두고 실천하시는 모습이다.

그런 목사님을 보며 내린 결론, 목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는 결코 수행할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려움,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 목사님이 지금까

철학임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은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 원칙의 실행, 목회 38년을 이어오시며 더욱 견고해진 하나님 대한 지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안다.

지난 추계산상집회 마지막 집회에서 목사님은 85세에 헤브론을 달라했던 갈렙처럼 다시 한번 세계를 맡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전 삶과 영혼까지 하나님께 드리며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려는 젊은이 못지않은 기백과 패기였다. 그 연세에 세계를 다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기에 목사님의 사랑과 그 열정의 강도를 가늠하고도 남는다. 부디 그러한 목사님의 목표와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40대의 기력을 주시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한은택 목사

성탄절 총동원 예배

2022. 12. 25 (주일)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딤후2:1~7)

성공하기 원하면 충성된 자를 써라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만든 자의 말을 듣는 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공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사람을 골라 써라.”

맞습니다. 사람이 힘ियो, 사람이 능력ियो, 사람이 자원이기에 그렇습니다. 농사꾼이 먼저 씨앗을 고르듯 사람을 골라야 내 삶에, 기업에, 교회에, 나라에 성장발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골라 써야 할까요? 충성된 자입니다.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

충성(忠誠)이 뭘니까? 가운데 중(中)에 마음 심(心)이 함해진 것이 충성 충(忠)이요, 말씀 언(言)에 이룰 성(成)이 만나 정성 성(誠)이니, 곧 진심과 정성을 다해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충성입니다.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마22:37)이 충성입니다.

사람과 씨앗은 골라 쓰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업자를 택할 때, 배필을 고를 때, 직원을 택할 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외모나 그 사람의 배경을 봅니다. 그러다 낭패를 보지요. 저도 다 경험한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삼상16:7)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꼭 테스트해본 후에 써야 합니다. 문벌이나 학벌, 배경을 보고 혹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허투루 해직 권고하다가는 법적 대응을 받습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은 쉬운데 내놓으라고는 절대 못하는 곳인지라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지요. 검증하지 않고 사람을 쓰는 것은 안개 속을 운전하는 것과 같아 매우 불안한 일입니다. 금은 문질러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압니다, 다이아몬드는 망치로 때려보면 알지요. 씨앗은 물에 담가놓아 붓 뜨는 것은 속이 빈 것입니다. 사람은요? 오래오래 살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이 말씀은 묵회 38년 동안 제 목회 철학인 동시에 삶의 좌우명이며,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사전에 ‘대충’이란 말이 없고, ‘차선’이란 말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합니다. 저는 신문이나 영상 편집자들에게 영화 ‘벤허’의 100번 시사

회를 자주 거론합니다. 벤허라는 불멸의 명작이 나온 것은 100번 시사회를 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기업이, 교회가, 국가가 명품이 되는 것은 그에 속한 자들이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합니다.

반면에 ‘대충’은 속히 끝내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서 일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십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잠28:20).

곧 임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들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많은 곳에서 충성된 자 일한 자

(창41:48~49).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셔서 정직한 자를 자랑하시고(시64:10), 그의 장막을 흥하게 하시며(잠14:11),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잠15:8),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며(시84:11), 흑암 중에도 빛을 보게 하시고(시112:4),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시며(사26:7),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잠2:7). 불량품이 기업의 암이라면 거짓은 인생의 암입니다. 암은 사방이 다 입이라 마구잡이로 먹어치우지요. 결국은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워 자폭하는 것이 암입니다. 거짓이 그렇습니다. 거짓은 결국 국



총회장 이초석 목사

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들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그들의 공

로를 인정해서 명예직을 주려고 합니다. 명예 장로, 명예 권사직을 예수 이름으로 줄 것입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기도했기에 오늘의 예수중심교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본시 나무의 원뿌리는 정체성을 나타내지만, 잔뿌리가 나무를 자라게 하거든요. 제게도 다윗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37명의 용사들과 느헤미야와 함께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자들과 같은 충성된 자들이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둘째, 정직한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저는 ‘똑똑한 자보다 정직한 자를 쓰라’고 늘 말합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이 선치 못함과 같이 정직하지 않은 자의 최선은 독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창39:5),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들어가자 전옥이 복을 받았으며(창39:21),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자 애굽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창41:48~49).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셔서 정직한 자를 자랑하시고(시64:10), 그의 장막을 흥하게 하시며(잠14:11),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잠15:8),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며(시84:11), 흑암 중에도 빛을 보게 하시고(시112:4),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시며(사26:7),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잠2:7). 불량품이 기업의 암이라면 거짓은 인생의 암입니다. 암은 사방이 다 입이라 마구잡이로 먹어치우지요. 결국은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워 자폭하는 것이 암입니다. 거짓이 그렇습니다. 거짓은 결국 국

거짓 때문에 망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짓을 날게 합니다. 결국 거짓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지요. 그러니 진실되고 정직한 자를 써야 합니다. 셋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 시원케 하는 자 말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을 베풀 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잠25:13).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있어 가장 유명한 용사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을 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압의 충성은 나름의 충성이었거든요. 주군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일은 다윗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죽여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미리 헤아릴 줄 아는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그런 자는 절대 주인의 말에 ‘아니요’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물이 그릇을 탓하지 않듯 충성된 자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와 예수님의 충성에 대해 나옵니다. 모세를 감히 예수님의 충성에 비유할 수 없지만, 두 분 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속을 시원하게 했던 충성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요!” 하고 소리칩니다. 백 번을 읽어도 백 번 다 “저요!”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뭘 해야 하나님의 속이 시원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지구를 수없이 돌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칼로 위협을 당하고, 호텔을 폭파시킨다는 협박도 당하고, 몽둥이로 맞고, KGB에 끌려가도 주의 명령을 알기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이 가까운 나이에도 다시 일어나 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주인만 좋은 게 아닙니다. 직장도 충성하면 직급이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님께 충성하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사도 바울도 이 축복을 알고 있었기에 충성한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8).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나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자신들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2~23). 너를 위해서라도 충성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를 쓰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매사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도, 주인도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이고, 더욱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며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한국교회에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소나기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웬지 위태하기만 하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잠을 자기 위해 배 밑층에 내려가는 요나와 같은 모습 같고, 박 넝쿨 그늘이 그리워 초막을 짓는 요나의 모습은 아닌지 답답하기만 하다. 더군다나 개인주의의 편만함과 이념의 혼재가 극심한 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가 요구되는 시대다.

목사님께서서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눅12:42),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접니다!"라고 외치시며 이사야의 심령을 갖고 암담한 세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흘려 보내려 보내지 않는 참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종이다.

바사제국의 2인자 하만은 유다 민족 모두를 멸하려는 엄청난 학살계획을 갖는다. 이에 온 유대인이 곡읍하여 부르짖기에 이르고 모르드개와 에스더도 밤낮으로 금식한다.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에4:16)라고 회답한다. 동족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비장한 에스더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모세는 성경이 인정하는 온유한 자였다. 그의 온유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다.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모세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옵소서'(출32:32) 라고 기도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을 때,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민족이 살 수 있었다. 지금도 에스더, 모세와 같이, 또 사무엘과 같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소름이 돋도록 우리를 감동시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무제한으로 허락하셨다. 누구든 열심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새겨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륜을 따라 복음을 위한 헌신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적 수준의 깊이가 대단함을 알고 긍지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 할 것이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눅12:49). 답답한 주님의 바람을 마음에 새긴 우리 교단이다. 자랑스러운 우리 교단의 창립 38주년과 총회장 목사님의 성역 3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신기류 목사

:: 신앙논객 ::

거목 아래에서 누리는 축복

예수중심제자신학원(이하 신학교)의 1학년 1, 2학기 과정을 마친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절로 감사가 나온다.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예전에 학생이었던 때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신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해나갔지만 늘 부족한 것만 같은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나의 걱정은 기우(杞憂)였다. 하나님은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고,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신학교를 이끌어주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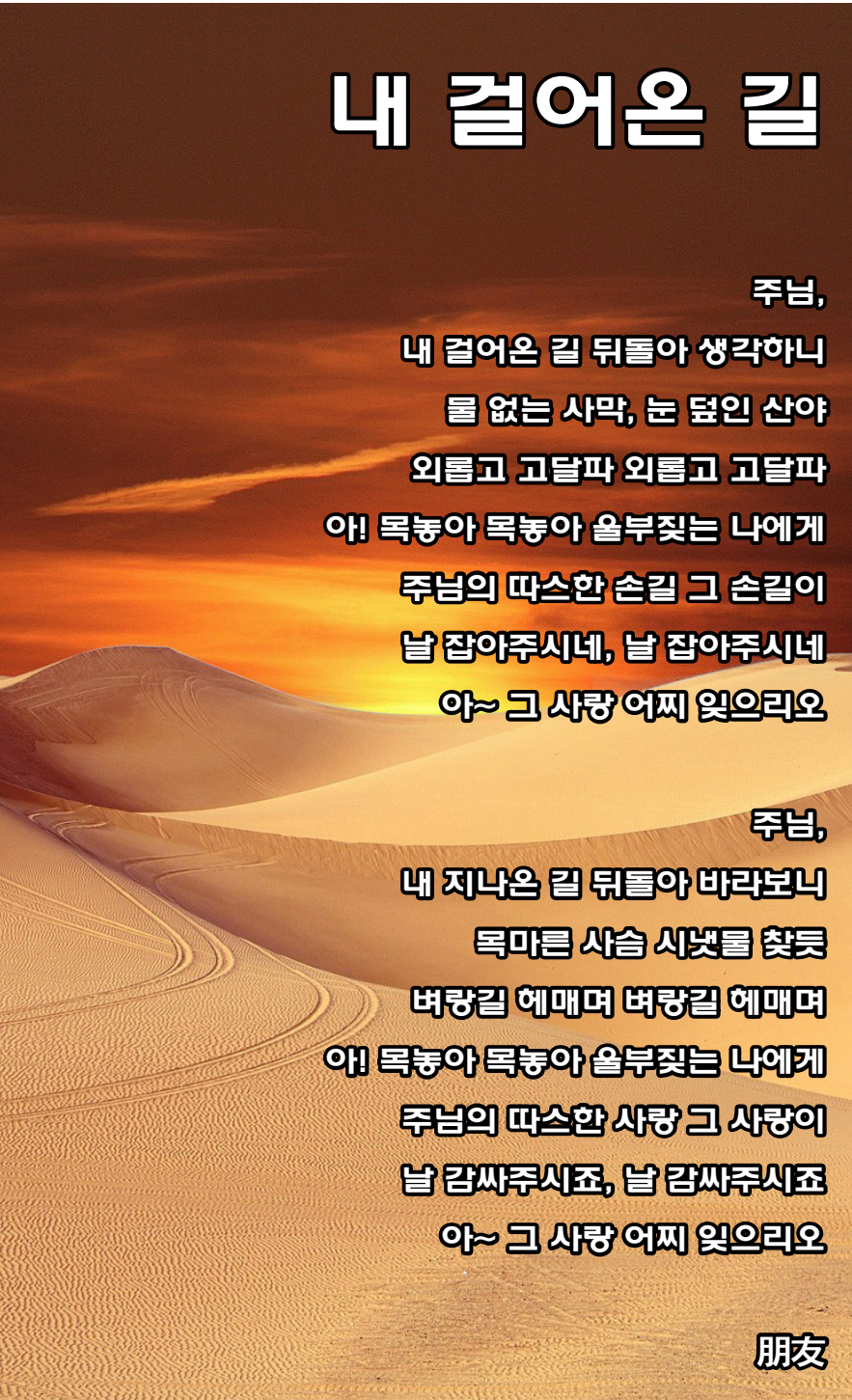
총회장 목사님은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신학교에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신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노량진 교육관을 신학교로 쓰게 하였고, 생도들의 학업능률을 높이기 위해 책상이며 교수대, 질판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마련해주셨다. 또한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 남에게 맡기면 사고 난다."는 평소 목사님 말씀처럼 수업 커리큘럼을 짜는 것에서부터 교수진들과 특강 강사들도 직접 검증하고 세우셨으며, 거의 모든 수업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부족하거나 고쳐야 할 점들은 교수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적해주시고 바로잡아주셨다. 뿐만 아니라 직접 '목회성

장학' 과목을 맡아 가르치시면서 생도들에게 목회 현장에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생한 강증들을 나눠주시고,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하고 교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지 당신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주다시피 하신다. 수업 외적으로도 목사님은 지금 생도들과 신학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계시며, 그 결과물이 바로 지난 9월에 있었던 신학생 금식 수련회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겨울학기 과정이다.

게다가 목사님은 직접 목회자가 될성부른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신학교에 입학할 것을 강권하시는 '홍보대사'의 역할도 하고 계신다. 아직 신입생 모집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목사님의 권유를 통해 내년엔 신학교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벌써 상당수 된다.

총회장 목사님의 진두지휘 아래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생도들보다 학생처장인 내가 더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목사님과 같은 거목(巨木) 아래에서 보고 듣고 배우며 일할 수 있다는 건 신학교를 맡으면서 얻은 최고의 축복이다. 목사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수중심제자신학원 학생처장 신혁주



내 걸어온 길

주님,
내 걸어온 길 뒤돌아 생각하니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
외롭고 고달파 외롭고 고달파
아! 목놓아 목놓아 울부짖는 나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 그 손길이
날 잡아주시네, 날 잡아주시네
아~ 그 사랑 어찌 잊으리오

주님,
내 지나온 길 뒤돌아 바라보니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
벼랑길 헤매며 벼랑길 헤매며
아! 목놓아 목놓아 울부짖는 나에게
주님의 따스한 사랑 그 사랑이
날 감싸주시죠, 날 감싸주시죠
아~ 그 사랑 어찌 잊으리오

朋友

:: 낮은 울타리 ::

헌-신발

몇 주 전 총회장 목사님께서 '헌신'이라는 주제로 신문에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헌신'을 헌 신발에 비유하여 설명하셨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새 신발이 아닌 정말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는 헌 신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이 정말 목사님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바로 이초석 목사님이시니 말입니다.

저는 2019년 평화통일집회 때 이초석 목사님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항상 멀리 단 위에 계시던 분을 제가 집회 사회를 맡으며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화통일집회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헌 신발' 그 자체였습니다. 비에 옷이 다 젖어도, 땀에 몸이 다 젖어도 목사님은 하나님께 한껏 길들여진 헌 신발처럼 어디서든 열정적으로 뛰셨습니다. 목사님은 참 멋쟁이십니다. 20대인 체가 보아도 목사님은 웃을 정말 젊고 센스 있게 입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헌 신발'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

회 당일 처음으로 목사님보다 뒤에 서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멋진 모습 뒤 웃이 다 젖어 땀자국이 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은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길들여진 신발이구나.

저는 아직도 그날 아침에 목사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를 잊지 못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자."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매 예배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처럼, 언제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이 가지 못한 길을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느 주인이든 마지막처럼, 헌 신발처럼 일하는 종을 가장 예뻐하고 가장 먼저 반겨줄 것이니까요. 38년 동안 한결같았던 우리 목사님의 헌신을 본받아 저도 주님이 가장 쓰시기 좋은 헌 신발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어디를 가고자 하시던지 찾아서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 말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도 이런 목사님을 본받고 따라가 더욱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장수정

:: 귀를 기울이세요 ::

:: 교단소식 ::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목사님을 통해 사랑을 배웁니다.
몸이 아픈 성도, 마음이 다친 성도, 나와 다른 성도들을 모두 안으시며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감싸주시는 목사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시는 목사님에게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목사님을 통해 열정을 배웁니다.
일흔이 넘은 연세에도 사십 대의 기력을 보이시며 젊은이들보다 더 젊은이 같은 목사님을 통해 우리 안에 있던 잠자던 열정을 끄집어냅니다. 매사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찬양의 열정, 기도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을 배웁니다.
목사님을 통해 감사를 배웁니다.

매사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며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달고 사시는 목사님. 작은 일, 큰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사님의 모습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방법을 배웁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시며 매 설교마다, 매 심방마다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청산유수 같은 목사님. 사도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수의 강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목사님을 통해 성경의 통찰력을, 생명의 '말씀'을 배웁니다.
목사님을 통해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눈물의 기도, 만드

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기필코 정신의 기도, 어제는 안됐어도 오늘은 된다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기도, 귀신과 악의 영을 쫓고 말겠다는 집념의 기도, 이 모든 '기도'를 목사님께 배웁니다.
어린 시절 예수중심교회라는 곳에 오게 되고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내며 PD로 사회생활을 겪고 지금 신학생도가 되기까지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인생을 배웠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성역 38주년을 축하드리며 아직 목사님께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며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송현혜 생도

구제

지난 12월 11일 예수중심교회 서울 청년부는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였습니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연탄 가격이 폭등했지만,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뜻있는 청년들의 하나 된 마음으로 부족함 없이 계획했던 가정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연탄 봉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다가 약 4년 만에 재개된 만큼 모두 설레고 기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청년들은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화창한 날씨 속에서 추위도 잊은 채 경사진 언덕을 오르내리며 연탄을 옮겼습니다. 연탄 가루를 뒤집어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각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였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지라도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힘들을 잊게 했습니다. 추운 겨울, 나눔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모두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산상집회 때 총회장 목사님은 '너는 어느 때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은 이방인 중 최초로 성령을 받은 고넬료에 대하여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행10:4)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기도와 구제에 힘써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마땅히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만이 물결을 따라간다(Only dead fish go with the flow).' 산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르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길 따라 떠내려갑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빛의 자녀가 됩시다.
아직 2022년이 2주 남았습니다. 올해 내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일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합시다.

전소희

so2eej@naver.com



:: 성역 38주년에 보내는 헌정시 ::

사도의 길

박찬영 집사

이전에 죄악된 몸 주 보혈로 씻겨진 후
그 은혜에 보답하려 목숨 바쳐 달려왔네
내 얼굴에 주름들이 모진 세월 말하지만
복음 위한 나의 열정 지금까지 변함없네

때로는 아픔으로 밤새도록 신음했고
내 무릎은 눈물로써 나날이 젖었지만
슬픔일랑 막을쏘냐 다시 나도 같은 선택
주님께서 위로하니 새 힘 받고 일어나네

나의 마음 누가 알까 주님만이 아시겠지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이룬 것도 아니지만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뜻대 보면
이 길 끝에 나오리라 나를 위한 부름의 상

수고했다 충성된 자 사랑한다 나의 아들
너로 인해 내 마음이 시원했고 고마웠지
주님께서 나를 안고 바라보며 말하겠네
그 꿈꾸며 오늘도 난 걸어가네 사도의 길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잘 낫는 기침과 잘 안 낫는 기침의 차이는?

별써 코로나로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사용하였으며, 최근 뉴스를 통해 실내마스크 사용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른 나라처럼 한국도 실내마스크 의무가 차츰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사용이 해제가 되건 아니건 간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순조롭게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비해 코로나 초기증상이 최근에는 조금 약해져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초기 불편한 증세가 지나간 뒤로 끝 무렵에 기침이나 설사, 피로와 같은 여러 가지 후유증 등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말미에 나타나는 기침 중에서 잘 낫는 기침과 잘 안 낫는 기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낫는 기침은 목이 붓고 기침이나 가벼운 가래가 있는 깊지 않은 기침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항생제나 진해제 등이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한방에서는 은교산

(약국 구매 가능)등이 초기 기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도라지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도라지는 누런 가래가 있는 기침에 효과가 빠릅니다. 잘 낫지 않는 기침의 특징은 기침이 폐 속에서부터 나오고 심한 기침이 지속적이고 잘 떨어지지 않아서 천식에 가까운 수준의 기침을 하거나 마른기침으로 잔잔하게 기침이 끝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천식에 해당하는 약물을 처방받기도 하는데, 한방에서는 폐가 건조해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오미자, 맥문동, 천문동, 생지황과 같은 약재로 폐에 수분을 공급해서 기침을 치료하게 됩니다.
생지황은 약국에서 경옥고 보약 안에 들어있으며, 경옥고는 인삼, 생지황, 복령, 꿀로 만들어진 보약으로 마른기침에 일반적으로 효과가 좋아 2~4주 사이면 마른기침이 잦아드는 효과를 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되지 않을 때는 평소 스트레스가 많거나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맥문동차, 천문동차, 오미자차를 마셔보고 그중에 기침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차를 찾아서 좀

더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간혹 바람만 쐬어도 기침이 심해지거나 날씨가 추우면 발작적으로 기침이 나오는 경우에도 증상이 오랫동안 불편하고 진해제나 항생제 등으로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에 한기가 들어온 것으로 가까운 한의원에서 침구치료나 한방치료를 받아서 폐를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받으면 차츰 회복이 됩니다. 가정에서는 곤륜혈자리를 마사지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에 기침이 가볍게 지나가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참 불편해집니다. 평소 스트레스가 많으면 심장에 열이 쌓이고 그 열이 폐를 건조하게 하여 감기나 코로나에 걸리면 마른기침을 오래 하게 되기 쉽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충분한 걷기 운동과 오늘의 감사를 거리를 1가지씩 찾아보는 것도 폐를 건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병을 예방해주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